

근대 일본에 있어서 구어 규범의 성립

형 진 의*

目 次

1. 들어가며
 2. 國語調査委員會의 설립
 3. 『口語法』 『口語法別記』의 성립과정
 4. 『口語法』 『同別記』의 규범
 5. 맺음말
-

1. 들어가며

「구어」란 실제로 말해지고 있는 음성언어와 그것을 토대로 한 문자언어를 포함한다는 개념 규정은 오늘날에는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일본」 또는 「일본어」와 역사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언문일치운동, 「국어」와 함께 「근대국민국가」의 탄생으로 인해 새로이 만들어진 표현 양식이자 개념인 것이다¹⁾.

근대 이전,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유럽에서도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는 사용 영역을 달리하며 이중 언어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예만 보아도 문자언어는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며 그것이 권위로써 받아들여졌고 음성언어는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변종이 존재했다. 권위의 상징인 문자언어는 일부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었고 음성언어는 음성언어밖에 구사할 수 없었던 사회 구성원의 신분만큼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국민국가의 탄생은 이러한 언어의 판도를 크게 바꿔놓았다. 계급사회가 붕괴되고 모두가 「국민」으로써 재편성 되면서 그 「국민」은 평등하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 즉 교육, 사법, 행정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참여할 것이 의무로써 부과되었다. 그러기 위해 그 매개체가 되는 언어는 과거의 이중 언어 구조가 아닌,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 우송대학교 초빙교수 사회언어학 일본어학

1) 구어의 개념 규정과 성립 과정에 관해서는 졸저 「日本における口語の諸問題」 『日本文化學報』 제22집을 참고바람.

평이하고 습득에 용이한 언어여야 한다. 「실제로 말해지는 음성언어와 그것을 토대로 한 문자언어」라는 표현 양식 「국어」는 근대국민국가의 언어 「국어」와 동시진행으로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난 개념인 것이다.

근대국민국가에 있어서 「국어」는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장치이며 제도로서 탄생한 개념으로, 따라서 지극히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산물이라는 문제제기가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²⁾. 「국어」가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는 「국어」에 민족성, 역사, 전통을 강조해 「국민」으로써의 연대감을 갖게 해야 하고, 기능적으로 균질적인 언어 즉 구어를 정비하고 문법과 철자법을 정비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1902년 설립된 「국어조사위원회」가 국가의 정책으로써 그 일을 담당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국민국가 일본이 「국어」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국어」를 어떻게 정비해 가는가, 일본 최초의 언어정책기관인 「국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국가기관으로써 처음으로 제시한 구어의 규범을 『口語法』(1916년)과 『口語法別記』(1917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의해 구어의 규범이 제시되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國語調査委員會」의 설립

「국어조사위원회」는 「국어」제도화의 첫걸음으로 우에다 가즈토시(上田万年)의 요망에 의해 그가 중심이 되어 문부성 자문기관으로써 설립된 일본 최초의 언어 정책기관이다. 우에다는 1894년 「국어와 국가와(國語と國家と)」라는 강연의 말미에 「국어 연구를 국가 사업으로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897년에 동경제국대학 내에 「국어연구실」을, 1902년에는 「국어조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어의 학문적, 제도적 정비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내지잡거(内地雜居)³⁾와 대만의 식민지 지배, 서양사상의

2) 이·욘스크[1996]『國語という思想』岩波書店
安田敏朗[1997]『帝國日本の言語編制』世織書房

3) 내지잡거(内地雜居)란, 1894년(明治27년) 일영통상항해조약의 체결에 의해 1899년(明治32년)부터 외국인의 일본 내 거주지를 개항장 주변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철폐한 것을 말한다. 이 사실은 언어적으로는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 표준일본어가 없음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에다 가즈토시(上田万年)는 1900년 1월 「内地雜居後に於ける語學問題」라는 글에서 「我が堂々たる日本帝國の國民諸君は、果たして内地雜居の後にありても、現今の如き國語の狀況を以て、満足すべきの狀況なりとし、かゝる國語は一方にては未來の國運を上進せしむるに足り、一方にては外來の諸國民、或は新に歸化する諸外國人を、能く日本化するに足る、思想界の媒介物なりと信ずるか、一中略一予輩は我日本帝國の國民は、國語上の準備なくして、内地雜居の曉にまで至りたりと、喝破するに躊躇

유입 등을 염두에 두고 국가로서의 표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절실했으며, 학교교육 면에 있어서도 1900년 소학교령개정에 맞춰 초등학교 의무교육기간이 4년간으로 통일되고 자음가나즈카이(字音仮名遣)를 표음식으로 개정⁴⁾하는 철자법 개정과 한자의 제한 (4년간 1200자)등 언어의 정비가 시작되던 시기이다.

「국어조사위원회」와 우에다 가즈토시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는 근대 일본의 「국어」의 성립과정과 우에다의 언어관에 관한 연구로 시미즈 야스유키(清水康行) [1990], 이 연속 [1996]、야스다 토시아키(安田敏朗)[199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구어 규범의 정비에 초점을 맞춰 문부성연보(文部省年報)를 토대로 「국어조사위원회」의 활동 중 구어문법 제정, 철자법 개정 등, 구어의 정비에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동위원회는 1902년 7월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정하고 국어 정비에 착수 한다⁵⁾.

- 1) 文字ハ音韻文字 (フォノグラム) ヲ採用スルコト、シ、仮名羅馬字等ノ得失ヲ調査スルコト
- 2) 文章ハ言文一致体ヲ採用スルコト、シ、是ニ關スル調査ヲ爲スコト
- 3) 國語ノ音韻組織ヲ調査スルコト
- 4) 方言ヲ調査シテ標準語ヲ選定スルコト

せざるなり。」라고 주장하고 국어 정비, 특히 표준어 제정을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 4) 일본 문장의 독해법에는 자음가나즈카이(字音仮名遣)와 국어가나즈카이(國語仮名遣)가 있다. 자음가나즈카이(字音仮名遣)는 한자어의 독해법이고, 국어가나즈카이(國語仮名遣)는 일본어(和語)의 독해법으로써 「字音仮名遣를 표음식으로 개정」했다는 것은 예를들면「學校へいきましよう」라는 문장 중에서 한자어인「學校」만 종래의 철자법인 「ガクカウ」가 아닌 「がっこう」로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어」를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대립을 보인 것이 철자법 문제인데, 국어의 개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능한 발음 대로 표기하는 표음가나즈카이(表音仮名遣)를, 전통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역사가나즈카이(歴史仮名遣)를 주장했다.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1900년에는 우선 한자어만 표음가나즈카이로 하는 것으로 타협을 하게 된다.

- 5) 「국어조사위원회」의 설립 경위와 초기의 구성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위원회는 1900년(明治三十三年) 「국가 국문 국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속히 그 방법의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國字國語國文ヲ改良シ、及ヒ此ヲ實行セン爲ニ、政府ニ於テ速ニ其ノ方法ノ調査ニ着手セラルベキコト)」는 내용의 청원서가 제국교육회 회장 남작 辻新次에 의해 내각, 문부성, 각 성의 대신 중의원,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되었다. 양원에서는 이 청원을 수정한 후 가결하고, 정부에 대해「國字國語國文ノ改良ニ關する建議」를 제출, 그 결과 같은해 「國語調査會」(準備會)가 설치되어 위원장 前島密、간사 上田万年、大槻文彦、德富猪一郎、湯本武比古、那珂通世、三宅雄二郎、朝比奈知泉、서기 保科孝一 의 멤버로 스타트했다. 참고로 前島、那珂、大槻、湯本는 가나론자, 나머지는 로마자론자이다). 그 후 1902년 4월(明治三十五年) 「國語調査委員會ハ文部大臣ノ監督ニ屬シ國語ニ關スル事項ヲ調査スル所ニシテ現今國內衆多雜駁ナル言語文字ニ對シ將來全國民ノ一般ニ使用スヘキモノヲ確定セントスルニアリ」(文部省年報第三十年報 [明治三十五年]) 라는 취지아래 동위원회는 정식으로 관계 시행되고 위원장에 加藤弘之、위원에 喜納治五郎(東京高等師範學校校長)、澤柳政太郎(文部省普通學務局長)、上田万年、井上哲次郎、三上參次、高楠順次郎(이상東帝文科大學教授)、渡部薫之助(文部書記官)、重野安禪、德富猪一郎、木村正辭、大槻文彦、前島密가 위촉되었다. 그 중 上田와 大槻는 主査委員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大矢透、林泰輔、保科孝一、奥田正美、新村出는 보조위원으로 임명되고 上田、大槻와 함께 기초위원을 조직했다. (『文部省年報』第三十年報)

그리고 향후 보통교육을 위해 시급함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발표한다.

- 漢字節減ニ就キテ
- 現行普通文体ノ整理ニ就キテ
- 書簡文其他日常慣用スル特殊ノ文体ニ就キテ
- 國語仮名遣ニ就キテ
- 字音仮名遣ニ就キテ
- 外國語ノ寫シ方ニ就キテ (『文部省年報』第三十年報)

동위원회는 1913년 관제폐지 될 때까지 위의 기본 방침에 근거해 국어 조사와 보고서를 작성했다. 철자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가나즈카이(歴史仮名遣)⁶⁾를 옹호하는 소위 「전통파」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 했으나 표준어 제정 및 구어문법의 제정에 관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다. 동위원회에 의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音韻口語法取調ニ關スル事項』 (1903년 8월)
- 『音韻調査報告書』, 『音韻分布図』 (1905년 3월)
- 『口語法調査報告書』 (1906년 12월)
- 『口語法分布図』 (1907년 2월)
- 『口語法取調ニ關する事項』 (1908년 3월)
- 『口語体書簡文ニ關する調査報告』 (1911년 4월)
- 『口語法』 (1916년 12월)
- 『口語法別記』 (1917년 4월)

다음 장에서는 주로 『口語法』, 『口語法別記』를 중심으로 근대일본의 구어의 규범이 어떻게 성립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6) 메이지 30년대 일본의 철자법에는 전통의 철자법을 계승하는 역사가나즈카이(歴史仮名遣), 발음에 충실하게 표기하는 표음가나즈카이(表音仮名遣), 표음가나즈카이 보다 더 소리 나는 데로 표기하는 보비키가나즈카이(棒引き仮名遣)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學校를 역사가나즈카이(歴史仮名遣) 로 표기하면「がくかう」, 표음가나즈카이(表音仮名遣)로 표기하면「がっこう」, 보비키가나즈카이(棒引き仮名遣)로 표기하면「がっこー」가 된다. 「국어」가 성립되고 국어 교육이 확대되는 메이지 30년대 이후 배우기 쉬운 철자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표음가나즈카이(表音仮名遣)나 보비키가나즈카이(棒引き仮名遣)로 전환 할 것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전통적인 철자법인 역사가나즈카이(歴史仮名遣)를 주장하는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현대가나즈카이로 통일 되는 1946년까지 교과서는 물론 대부분의 문장에서 역사가나즈카이(歴史仮名遣)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3. 『口語法』, 『口語法別記』의 성립과정

「국어조사위원회」는 1902년 관제시행 되자 다음해에 3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구어 조사 질문지를 전국의 초, 중학교와 교육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결과를 1906년 『口語法調査報告書』로 만들어낸다. 이 조사보고서는 그 목적이 표준어제정을 위한 것으로서 『口語法』, 『口語法別記』의 토대가 되므로 조사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보고서는 일본 최초의 음성언어의 전국 조사 보고서로서 표준어 제정과 방언학 성립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조사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여 전국의 초, 중학교와 교육위원회에 송부하는 통신조사 방식이었다. 즉 실지조사가 아니었고 일본 최초라는 점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질문 내용을 몇 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第八條 上二段活用ノ「恨む」ヲ、尋常の四段活用ノ如ク用キテ居ルカ。
 將 然 連 用 終止、連体 已 然 命 令 未 來
 恨ま(ぬ) 恨み 恨む 恨め(ば) 恨め 恨ま(も)う(オ)

第十七條 波行四段ノ活用ヨリ、「て」「た」ニ續クルトキハ、次ノ二様ノ何レニ云フカ。
 「言ッ」(て) (た) 「拂ッ」(て) (た) 「拾ッ」(て) (た) 「戰ッ」(て) (た)
 「言う」(て) (た) 「拂う(お)」(て) (た) 「拾う(お)」(て) (た) 「戰う(お)」(て) (た)

第三十一條 動詞ヲ打消ニ形作ルニハ、
 聞かない 聞かない(で) (けれど) 聞かなく(て) (なる) 聞かなけれ(ば)
 聞かなかった 聞かなからう
 ナド云フカ、又ハ
 聞かぬ 聞かぬ(で) (けれど) 聞かず(に) (とも) 聞かぬ(ば)
 聞かなんだ 聞かいで
 ナド云フカ。又、此ノ打消ノ「ぬ」ヲ「ん」ト發音スルカ。

38개조항의 질문이 모두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이 조사는 학교교육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아가 일본의 구어는 기존의 문어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차치하고 이와 같은 질문 내용에 대해 도조 미사오(東條操)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答者に多少の學問はあっても抽象的な質問方法は出来るだけ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例へば「奈行変格動詞の活用は如何」とか「過去完了の助動詞は如何」とか云ふやうな問い方は最も策の拙いものである。國語調査委員會の諮問條項などはかなり具体的な例が示してあったにも拘わらず、其報告を見ると一般的に云うと、まだ難問にすぎたやうである。(東條[一九三五：八八頁])

즉 질문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고 조사하는 측과 조사받는 측의 요령 부족도 있어 「가끔 이용한다(稀に用ふ)」、「혼용한다(混用す)」、「이용하는 일도 있다(用ゐることもあり)」、「말하지 않는다(云わず)」등과 같은 애매한 대답이 많아 정확도에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口語法』, 『口語法別記』가 만들어지고 일본 최초의 방언지도가 만들어졌고 학문으로써의 방언학이 스타트 하게 되는 등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료임에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⁷⁾.

전국의 구어 조사로부터 시작되는 『口語法』의 편찬 과정을 『文部省年報』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一九〇三年「次年度ニ於テ着手スヘキ口語文法並標準語選定ニ必要ナル資料募集ノ爲音韻口語法取調ニ關スル事項ヲ印刷、之ヲ府縣ニ配付シ其ノ報告ヲ要求セリ」『第三一年報』

一九〇四年「口語文法制定案、語法上ノ術語制定案等ノ諸案ノ外文部大臣ヨリ諮問ニ係ル國語仮名遣改定案、字音仮名遣ニ關スル事項及文法上許容スヘキ事項ノ發表理由書等」『第三二年報』

一九〇五年「國語仮名遣改定案及字音仮名遣ニ關スル事項ト口語文法制定案トノ二件ニシテ前者ハ年度內四月ヨリ十月ニ至ル間ニ於テ約十八回ノ委員會ヲ開キ委員提出ニ係ル關連諸案ト共ニ反復審議ヲ重ネタル結果各諮問案ニ多少ノ修正ヲ加ヘ文部大臣ニ答申、後者ハ十月下旬ヨリ年度末ニ至ル間ニ於テ十七回ノ委員會ヲ開キ助詞、副詞、接續詞、感動詞、接頭語、接尾語、代名詞、數詞等ニ關スルモノヲ決議スルニ至レリ」『第三三年報』

一九〇六年「前年度提案口語文法制定案ノ改案ニ係ル日本口語法單語編及送仮名法等ニシテ此等ノ諸案ニ關連シテ委員等ヨリ提出シタル議案若ハ參考案ハ句讀法整理案、同分別書キ方案中ノ改正案、分別書キ方案整理案、動詞ノ活用、法、時等ニ關スル修正案、口語動詞活用図、名稱制定ニ就キテ斟酌スヘキ條件等ナリ」、「日本口語法ハ九月ヨリ三月ニ至ル間ニ於テ十四回ノ委員會ヲ開キテ之ヲ審議シ單語編ノ第一及第二ノ全部ヲ議シタル」『第三四年報』

一九〇七年「日本口語法單語編ノ第三ハ十六回ノ委員會ヲ開キテ之ヲ議了シ、其整理ヲ主査委員一人ニ附託スルコトト爲セリ。」『第三五年報』

一九〇八年「口語法單語編第一乃至第三ハ前年度委員會決議ノ趣旨ニ基キ其整理ヲ主査委員一人ニ附託シ、既ニ其第一ヲ脱稿スルニ至レリ。」『第三六年報』

이것을 통해 보면 『口語法』과 『同別記』는 1903년 동위원회에 의해 논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구어의 전국 조사에 착수하고 1906년에는 심의가 끝나 1908년에 주사위원 오오즈키 후미히코(大槻文彦)에게 정리가 맡겨지고 탈고된다. 그러나 실제 간행된 것은 1916년(大正5年)으로, 동위원회는 1913년에 관제 폐지되기 때문에 동위원회가 폐지된 후에 간행을 보게 된다.

7) 『口語法調査報告書』에 대해서는 표준어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4. 『口語法』『同別記』의 규범

『口語法』은 예언(例言)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구어는, 지방에 따라 매우 구구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본서는 주로 오늘날 도쿄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구어를 표준으로 정하고 기타 지방의 구어 법칙이라도 널리 이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작했다(現今我が國ニ於ケル口語ハ、地方ニヨリ頗ル區々ニシテ一致セズ、本書ハ主トシテ今日東京ニ於イテ専ラ教育アル人々ノ間ニ行ハルル口語ヲ標準トシテ案定シ、其ノ他ノ地方ニ於ケル口語ノ法則トイヘドモ廣ク用キラル、モノハ或程度マデ之ヲ斟酌シタリ)」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구어의 일치를 위해 도쿄의 교육 받은 사람들의 말과 약간의 지방의 말(관서 어법)을 그 표준으로 하고 있다⁸⁾.

『口語法』은 어법의 골자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고, 『同別記』는 구어 하나하나에 대한 현재 각 지방의 차이 및 역사적인 어체의 변천을 제시하는 책으로, 『同別記』에서 제시하는 각 지방의 차이란 앞서 말한 『口語法調査報告書』의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즉 『口語法』과 『同別記』는 『口語法調査報告書』에 의한 공식적 근거와 『古事記』, 『日本書紀』, 『万葉集』를 비롯 에도시대 작품까지 166권의 고전이 망라된 통시적 근거에 바탕을 둔 구어 규범서이다. 그 규범은 주로 「하나로 결정했다(一つに決めた)」、 「두 가지로 정했다(二つに定めた)」、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用いぬがよい)」와 같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용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구어 규범의 초석이 된 『口語法』과 『同別記』의 규범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口語法』과 『同別記』에서 용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口語法』의 토대가 되고 일본 최초의 구어 조사인 『口語法調査報告書』도 용언의 활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참고로 어휘를 중심으로 하는 제2차전국조사가 1908년 이루어졌지만 1913년 동위원회의 관제폐지에 의해 일시 중단 되고, 그 자료는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소실되었다.

① 「하나로 결정했다(一つに決めた)」의 예

· 文語のハ行四段活用ノ動詞ノ「言ひ」買ひを、口語でわ、「言い」買いと云い、それに「て」たが附けば「言つて、た」買つて、た」となるわ、静岡縣、山梨縣、長野縣から東が、大抵そうであつて、愛知縣、岐阜縣、新潟縣でわ、「言うて、た」買うて、た」をまぜて云い、それから西わ、九州まで大抵「言うて、た」買うて、た」と云う。助詞の「たら」たり」にも同じように續く、初わ、兩立させようと、案を立てたが、決議の末に「言つて、た」買つて、た」とすることになった。但し、「請い」問い「給い」わ、「請うて、た」問うて、た」給うて、た」とする。(『同

8) 동위원회에 의한 언어정책은 관제시행부터 「도쿄어」를 전제로 하고 있고, 교토를 중심으로 한 구어와의 대립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동경어가 중심이 되었다.

別記』六四,六五頁)

・「よくなる」長くかゝる」嬉しく思う」新しく作る」よくて」嬉しくて」など、文語のまゝに「く」と發音するは、關東、奥羽、松前、静岡縣、長野縣と、越後の一部であつて、尙、佐賀縣の唐津、宮崎縣の延岡、其外、諸所でも云い、そして、沖繩縣でも、「く」と云う、其外、愛知縣、岐阜縣、富山縣、越後の一部から西は九州まで、すべて、「よくなる」長うかゝる」嬉しう思う」新しう作る」よくて」嬉しうて」であるが、愛知縣、富山縣、出雲、高知縣に「く」をまぜて云う所がある、因て初わ、兩立させるように案を立てたが、決議の末に、「く」とすることゝなつた。(同一六九頁)

이 두 개의 예를 통해 보면 관서 어법과 관동 어법 양쪽을 인정하는 안을 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관동 어법인 「言つて、た」買つて、た」와 「よくなる」長くかゝる」가 규범으로 인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00년전 이 시기에는 구어의 규범으로써 관동 어법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으나 관서 어법도 거론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口語法』『同別記』를 최종 정리하고 탈고한 오오츠키 후미히코(大槻文彦)등은 「일본어」의 원점을 「교토어」에 두고 있고 「도쿄어」를 표준으로 삼는 데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처음부터 하나만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로써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バ行四段活用、又わ、マ行四段活用の動詞の「呼び」遊び」又わ、「飲み」頼み」讀み」などに「て」た」をつづける時に「呼んで、だ」遊んで、だ」飲んで、だ」讀んで、だ」と口語に云うわ、東國一圓から、西わ中國四國まで、大抵同じである。しかし、富山縣、石川縣、美作、備中、出雲等

9) 大槻는 1902년 저술한 「國語改良の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國語改良のことは、非常の大事業であつて、中々一朝一夕に成し遂げられることではない、世間には文体を言文一致にして、その標準語を東京の上流の者の言葉に取ればよいなど、容易なやうに思つて居る者があるが、予の考へでは、東京言葉ほど亂雜で、不思議な言葉はないと思う、一例を擧げていへば、人の平生使用する言葉の「ゴザイマス」の「マス」といふ言葉を試みに文法で碎いて見れば「マス」といふのは、文法上の終止法で、命令法には「マセ」といふ、是れは四段の活きとみねばならぬ、然るに又未來には「ゴザリマセウ」といふから下二段活用と見ねばならぬ、しかるに又此の「マス」に「ル」をつけても用いるので「マス」と「マスル」が兩立して居る、斯ういふ風で、活用の規則が立てにくい、立てゝも変格といふものになつて、それが一つ二つならばよいが、幾つもいくつも出て來る。—中略—尙ほ、東京人の訛もひどい、うごく(動く)「イゴク」といひ、よい(善い)を「イ、」といひ、あそぶ(遊ぶ)を「アスブ」といひ、みゞず(蚯蚓)を「メ、ズ」といひ、しじみ(蜆)を「シジメ」といひ、あゆ(鮎)を「アイ」といひ、—中略—それで東京言葉は輕薄に聞こえて、威嚴莊重といふ品が全く欠けて居る。これが東京言葉の大瑕である。又急いで咄すから言葉も変わり易い、百年前の小説などには、今では分かれぬ言葉が多い。五十年前のでも余程違つて居る。それでも、もともと京都言葉から出たので、京都は千年の都でもあるから、今東京言葉を穿鑿するならば、どうしても京都言葉を一応調べて、參考とせねばならぬと思う。—中略—此の如く今日の東京言葉といふものは、種々の關係より成り立つた、頗る混雜して居るものであるから、直ちにこれを以て、大日本國の標準語とするなどといふことは、とても出來ぬ。」(大槻[1902: 5~6p])

· にな、希に、「飲うで、だ」頼うで、だ」など云う所があり、廣島縣、山口縣、石見、高知縣にも「飛うで、だ」遊うで、だ」飲うで、だ」頼うで、だ」讀うで、だ」など云って、又わ、「飲んで、だ」頼んで、だ」などませて云う所もある。九州でも大抵二つをませて用いて居て「んで、だ」ばかりなのわ、福岡縣で、「うで、だ」ばかりなのわ、熊本縣である。今わ、用いるところの多いのによって、「んで、だ」に定めた。そうして是等が、助詞の「たら」「たり」に續くにも、「だら」「だり」となる。(同 七十五頁)

· 文語でわ上二段活用の未來、推量を「起きむ」落ちむ」と云うを、口語でわ、東國、松前一圓から、西わ、播磨、但馬、和歌山縣、香川縣あたりまで、大抵「起きよう」落ちよう」と云い、(京都、大阪もそうである)丹波、徳島縣、愛媛縣でわ「起きよう」落ちよう」に「起きよう」落ちよう」をませ、高知縣でわ「起きゅう」落ちゅう」をませ岡山縣、鳥取縣から西は、山口縣まで「起きゅう」落ちゅう」-中略-今は、「起きよう」落ちよう」に定めた。(同一〇六頁)

② 「둘로 정했다(二つに定めた)」의 예

· 「飽く」足る、借る」を、關西の口語にな、おもに五段活用につかい、關東では「飽きる」足りる」借りる」と上一段につかつて居る。因つて是等の語わ、兩方に活用するものとする。(同二五頁)

· 上一段、下一段活用の動詞の命令を、駿河、山梨縣、長野縣、越後の一部から東でわ、口語に「起きろ」落ちろ」着ろ」見ろ」受けろ」捨てろ」と云う。其外わ、遠江、愛知縣、岐阜縣、富山縣、佐渡から、京都府、大阪府、和歌山縣、香川縣までわ、大抵、「起きよ」起きい」落ちよ」落ちい」着よ」着い」見よ」見い」などをませてつかい、(京都、大阪わ「起きい」落ちい」着い)」それから西わ、九州まで、大抵わ「い」である。しかし上一段活用にわ、「い」の着かぬのもあるから、今わ、「ろよ」の二つに定めた。(同一三一頁)

· 打消の「ずぬね」ない」なく」なけれ」わ、静岡縣、山梨縣、長野縣、越後を境として、それから東わ「なく」ない」なけれ」で、「ずぬね」をませ、それから西わ、九州まで専ら「ずぬね」を用いる。けれども、岐阜縣の安八群、養老郡、岡山縣の英田群、廣島縣の沼隈郡、比婆郡、島根縣の大原郡、簸川群、宮崎縣の宮崎郡に「なく」ない」なけれ」を用いる所がある。因つて、二つながら、通用させる事とした。(同二五〇頁)

이들 예는 관서 어법과 관동 어법을 모두 규범으로 인정한 예이다. 그러나 「飽く」「足る」「借る」、상하일단동사 명령형「よ」、打消しの「ず」「ぬ」「ね」등은 오늘날에는 관용적 표현 이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들 어법은 1904년부터 시행되는 국정교과서 「국어독본」의 어휘 변천에서 알 수 있듯이 1908년 제2차 개정과 1918년 제3차 개정을 거치면서 관서 어법은 자취를 감추고 관동 어법이 표준어로써 자리 잡아 간다. 이 밖에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用いぬがよい)」、「허용되지 않는다(許されぬ)」등의 예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카行四段活用の動詞の「行きて」「行きたり」に限って「いって」「いった」となったわ不思議である。是れは、室町時代からのようで、同時に「いて」「いた」とつゞめたのをまぜて、後には「いて」「いた」などばかりになった。(今でも、畿内、西國では、そうであるが、東國では、「って」「た」)である。) 是れは「因りて」を「よて」と云い「以ちて」を「以て」と云うと同じであろう。けれども「いて」「いた」わ用いぬがよい。(同八八頁)
- 駿河、山梨縣、長野縣、越後から東でわ、「書いて居る」「讀んでいる」「受けている」などを約めて「書いてる」「讀んでる」「受けてる」(過去に「書いてた」「讀んでた」と云て、進行現在に用いることがあって一中略—又「書き居る」「讀み居る」「受け居る」を轉じて「書きよる」「讀みよる」「受けよる」などゝも云う所があるが、どれも用いぬがよからう。(同一三〇頁)

이상의 예를 보면 도표를 중심으로 한 말이 원래부터 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도표어를 기준으로 표준어를 삼는 기반이 이렇게 마련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口語法』과 『同別記』의 논의 과정에서 다소나마 참작이 되었던 관서어법도 표준어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예를 종합해 보면 논의를 통해서 표준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니고 규범의 기준으로써 이미 도표어가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를 한가지 더 들면 『口語法調査報告書』에는 형용사 「好し」「好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第三十六條 形容詞ノ「好し」「好き」ヲ「よい」ト云フカ、「いい」ト云フカ、「えい」ト云フカ「ええ」ト云フカ。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いい」、「よい」: 東京府。(「府下一般」)群馬縣、宮崎縣(ごく一部でエイ)。

「よい」、「いい」、「ええ」: 神奈川縣、埼玉縣、静岡縣、青森縣、長野縣、愛知縣、鳥取縣、福岡縣、大分縣、茨城縣。

「えー」、「いい」: 新潟縣、千葉縣、山梨縣、福井縣。

「よい」、「ええ」: 北海道、福島縣、山形縣、秋田縣、京都府、大阪府、兵庫縣、奈良縣、滋賀縣、富山縣、和歌山縣、島根縣、岡山縣、廣島縣、香川縣、高知縣。

「ええ」: 宮城縣、岩手縣、三重縣、岐阜縣、石川縣、山口縣、徳島縣、愛媛縣、鹿兒島縣。

이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よい」「いい」「ええ」「えー」는 전국에 혼재하고 있고 지역 마다 특색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 공통의 어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 조사를 토

대로 하고 있는 『同別記』에서도 「「いゝ」は、東京府、埼玉縣、千葉縣、茨城縣、神奈川縣、静岡縣、山梨縣、長野縣で云い、尙、越後、三河、福井縣、香川縣、大分縣でも云い、宮崎縣に多く、沖縄縣もそうである。そうして大抵「よい」「えい」を混用している。殊に、中國の西部、四國、九州の半わ「えい」である。又「えい」を「えゝ」と云う所が多い」(『同別記』一五二)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구어로써 「よい」「いい」「ええ」「えー」모든 것을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口語法』에서는 「第6章 形容詞」에서 「よい」「いい」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실제 널리 사용되고 있던 「ええ」는 언어적 우열이 아닌(사실은 언어학의 견지에서 언어의 우열이란 있을 수 없고 모든 언어는 평등하게 취급된다. 다만 정치적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해 어떤 언어를 우수한 또는 열등한 언어로 규정하는 것뿐이다)도쿄어를 표준어로 한다는 정책적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배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규범으로 정해진 구어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국어」의 전면에 등장해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 배워야 하는 언어로 규정되고, 거기서 제외된 변종, 예를 들면 「ええ」는 공적 영역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 교정되어야 하는 언어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5. 맺음말

우리들이 오늘날 「올바른 일본어(正しい日本語)」로써 인식하고 있는 일본어의 규범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물론 『口語法』과 『同別記』의 내용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은 아니다. 국정교과서나 출판, 인쇄물, 방송 등을 통하여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그 기반은 『口語法』과 『同別記』이고, 그 규범은 「도쿄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음성 언어를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口語法』과 『同別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일견 객관적인 듯이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국의 언어 조사의 결과에 의해 규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언어 조사 전에 이미 도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말을 표준으로 한다는 국가의 규범 설정의 의도가 명확히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대 이전, 평등하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음성언어가 근대국가 탄생이후 언어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새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표준어와 방언으로 구분되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판단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근대 일본에 있어 방언의 성립에 대해 시바타 타케시(柴田武) [1977]는 「메이지 이후 시종 「국어」에 대한 방언, 「표준어」에 대한 방언이고 그 반대가 아니었다. 국어조사위원회가 「방언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표준어를 선정」하기 위함 이었다. 이렇게 해서 방

언어 수반되는 부수적인 의미도, 표준어를 위해 봉사하는 방언이라는 생각도 일본의 근대화 안에서 형성된 것¹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언어 근대화를 위한 표준어 형성 과정에서 방언의 위치가 결정되었으며 그 방언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방언표찰(方言札)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듯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언어, 즉 교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를 「아름다운」 또는 「바른」 말로 규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방언은 「수치스러운」 또는 「교정」되어야 하는 말로 규정된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언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口語法』과 『同別記』는 지금까지 주로 방언학 연구 분야에서 각 지방의 방언을 기술한 책으로써 다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학문으로써의 방언학은 또한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口語法』이 제시하는 구어의 규범과 『同別記』가 제시하는 각 지방의 언어의 차이를 단순한 방언의 기술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口語法』과 『同別記』에 의해 국가 기관이 「一つに決めた」、「用いぬがよい」、「許されぬ」 등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사용해야 하는 언어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 올바른 언어와 바르지 않은 언어라는 의식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언어의 서열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口語法』과 『同別記』는 구어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 표면적인 역할과 함께 구어가 아닌 것이 제시됨으로서 표준어에서 「제외된 부분」 즉 방언의 형태를 명확하게 했고, 표준어 vs 방언을 인식시키는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일본의 방언학이 출발하게 된다. 「메이지의 방언 연구는 국어 통일, 방언 교정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좋다(明治の方言研究は、國語統一、方言矯正の目的の下に行われたものと云ってよい)」라는 도조 미사오(東條操)[1935b]의 지적을 근거로 한다면 「방언을 조사해 표준어를 선정」한 『口語法』과 『同別記』 또한 표준어 선정과 함께 방언의 교정 또한 숨은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극력 「표준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했다. 「표준어」와 본 논문에서 다룬 「구어」는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표준어」는 「방언」에 대립되는 개념이고 「구어」는 「문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규범화된 음성언어와 거기에 바탕을 둔 문자언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표준어」 vs 「방언」이라는 대립은 국어가 구축 되어가는 과정에서 「표준어」는 국가적 견지에서 보장받은 변종으로, 「방언」은 교정의 대상으로 성립된 개념으로 「표준어」는 「올바른」, 「아름다운」 언어라는 가치판단이 동반되는 사회 규범적 개념이고, 「구어」에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판단의 요소는 없고 언어의 표현 양식에 속하

10) 柴田武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明治以來、終始「國語」に對する方言、「標準語」に對する方言であつて、その逆ではなかつた。國語調査委員會が「方言ヲ調査シ」ようとしたのは、「標準語ヲ選定スル」ためであつた。こうして方言に伴う付隨的な意味も、標準語のために奉仕する方言という考え方も、日本の近代化の中で形成されたものであつて、諸外國では必ずしもそうではない。「標準語、共通語、方言」『標準語と方言』p.29

는 개념이다. 본고는 「구어」의 성립과정과 그 배경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구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자 했다.

【參考文獻】

- 이·욘스크[1996]『國語という思想』岩波書店
上田万年[1895]『標準語に就きて』『帝國文學』第一卷一号
上田万年[1900]『内地雜居後に於ける語學問題』『明治文學全集』44 131 p
大槻文彦[1902]『國語改良の話』『教育時論』六一七号 5~6 p
金井保三[1901]『廣日本俗語文典』賓永館書店
國語調査委員會[1906]『口語法調査報告書』
國語調査委員會[1908]『口語法取調に關する事項』
國語調査委員會[1916]『口語法』
國語調査委員會[1917]『口語法別記』
柴田武[1977]『標準語、共通語、方言』『標準語と方言』文化廳「ことば」シリーズ6 29 p
清水康行[1990]『近代「國語」史研究の視點』『國文學 解釋と鑑賞』55卷 7号
東條操[1935a]『方言語法の調査』『方言』第五卷二号 88p
[1935b]『方言研究に關する諸問題と方言學樹立への希望』『文學』3卷2号3p
古田東朔[1982]『現代の文法』『講座國語史4』大修館書店
芳賀矢一[1913]『口語文典大要』『芳賀矢一選集』第四卷
平井昌夫[1998]『國語國字問題の歴史』安田敏朗解説 三元社 220p
ヒョン·ジニ[2004]『近代日本における「國語」構築と「口語」概念の發生』
一橋大學大學院博士論文 2p
ヒョン·ジニ[2004]『近代日本における口語の諸問題』『日本文化學報』第22輯
保科孝一[1911]『日本口語法』同文館
保科孝一[1934b]『新體國語學史』賢文館
松下大三郎[1901]『日本俗語文典』德田政信解説 勉誠社
文部省[1947]『中等文法 口語』
文部省 『大日本帝國文部省年報』 第30年報~35年報
文部省[1949]『國語調査沿革資料』
安田敏朗[1997]『帝國日本の言語編制』世織書房
安田敏朗[1999]『「言語」の構築』三元社

要 旨

今日自明な事実のように受け止められている「口語」、つまり實際話される音聲言語とそれに基づいた文字言語という概念は、日本の言葉（あえて「日本語」という語を用いないのは、「日本語」という語も日本が植民地を獲得していく過程において生まれた語、つまり他者を意識するようになってから、用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語である）と歴史を共にする概念ではなく、日本が國民國家として形成されていくなかで、「國語」と共に新しく創出された概念である。

1902年、日本で初めて言語政策機關として生まれた「國語調査委員會」は、日本で初めて話し言葉の全國調査を行い、それに基づいて『口語法』(1916年)と『口語法別記』(1917年)を著し、「標準語」の規範として示した。

その基準は『口語法』の例言に「現今我が國ニ於ケル口語ハ、地方ニヨリ頗ル區々ニシテ一致セズ、本書ハ主トシテ今日東京ニ於テ専ラ教育アル人々ノ間ニ行ハルル口語ヲ標準トシテ案定シ、其ノ他ノ地方ニ於ケル口語ノ法則トイヘドモ廣ク用キラル、モノハ或程度マデ之ヲ斟酌シタリ」と示されているように、東京の言葉が中心で若干の地方の言葉（主に關西語）であった。そこで「言うて、た」買うて、た、「ようなる」ではなく「言つて、た」買つて、た、「よくなる」が、「飲うで、だ」頼うで、だではなく「飲んで、だ」頼んで、だ」が、關西語である「飽く」足る」借る」と關東語である「飽きる」足りる」借りる」の場合は、兩方を規範として認め、「一つに決めた」、「二つに定めた」、「用いぬがよい」などの形で示された。今日私たちが自明な事実のように受け止めている「正しい日本語」は、このように人爲的で、かつ政治的な判断に基づいて「つくられた」ものなのである。

『口語法』と『同別記』によって示された口語の規範が、そのまま標準語に定着したわけではない。その後の國定教科書『國語讀本』や、新聞、雑誌などの出版物、ラジオ放送などによって変遷してきているのであるが、その基盤となる貴重な資料であることには間違いない。

『口語法』と『同別記』は、これまで主に方言學分野において各地方における方言を記述した資料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きた。しかしこの資料によって「方言」と「標準語」を區別し、「學ぶべき言葉」と「矯正されるべき言葉」という意識が生まれたこともまた事實であろう。『口語法』と『同別記』は口語の標準を制定するための資料であったが、その表面的な役割と共に、標準でないものを示すことによって、標準語から「はみ出された部分」、つまり方言の矯正がその目的であったといえる。

キーワード：近代國民國家、國語、國語調査委員會、規範、言語調査、口語、標準語、方言

투 고 : 2005. 5. 31

1차 심사 : 2005. 6. 11

2차 심사 : 2005. 7. 2

住 所 : (300-718) 대전시 동구 자양동 우송대학교 186번지 국제교육센터 404호 일본유학과

電 話 : 042-629-6647

e-mail : hjini117@hanmail.net